

News

[단독] 대출금리 상승속도, 2000년 이후 가장 빨라

매일경제

과거엔 은행 대출금리 인상폭 기준금리 상승분 절반만 반영

최근 자율권주자 상승폭 커져 예금금리 인상 경쟁 여파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불뚝'

중소기업 대출 금리 5% 이상 비중 70%...1년새 23배 폭증

연합뉴스

10월 평균 5% 돌파...10년 2개월만에 최고, 대출 잔액 급증에 이자 부담 가중...한계 중소기업 증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시 경영난 가중..."해외 거래처 주문 끊길까 우려"

너무 많이 올렸나?...예금금리 내리는 저축은행

아시아경제

한달 새 수신금리 4~5차례 떨어져, 예금금리 인상속도 6개월 내 최저

금리 인상 자제하라 당국 메시지, 규제 완화로 수신 넉넉해진 측면도

카뱅서 중저신용 대출받으면 첫달 이자 무료

디지털타임스

카카오뱅크는 12월 한달간 중저 신용고객 대상으로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를 진행

12월 한달간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을 새로 실행한 중저신용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지원

3달 만에 34조 풀린 보험사 RP...단기시장 교란 조심

대한금융신문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28일까지 보험사들이 매도한 11월 RP의 총금액은 14조3214억원을 기록

보험사의 물량이 시장을 자극해 금융권의 단기자금시장 전반에 인플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실손보험 인상률두고 금융당국-보험업계 줄다리기 여전

한국금융

보험업계, 실손보험 인상률 10%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금융당국,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상률을 높게 가져가면 안된다며 업계에 자제 요청

'유동성 위기가 더 무섭다'...연 8% 이율 내세운 증권사

비즈니스워치

증권사, 6~8%대에 이르는 원리금보장 ELB를 내놔 타 업권 대비 높은 이율 제시

컨닝 공시 규제에도 금리 경쟁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자, 채권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짐

해외법인 대출도 국내처럼 금융당국, 중투사 대출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대출) 규제 완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NCR이 낮은 증권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 법인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